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권혁용, 차유미

은퇴전도사 정주애

목사 김원재

오전 9시
오전 11시

교회소식

2월의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파송의말씀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환우를 위한 기도

주 은혜를 받으려(찬 39)

은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내 주님 서신 발앞에(찬 214장 4절)

사도행전 28:11-15

본향을 향하네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찬 569)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조병기

다같이

다같이

사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인도자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2월의 공동기도는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가족기도제목 카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교역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오늘(2/13)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5. 2월 27일(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정주애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장새벽기도회는 토요일에만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Zoom으로 “월~토”에 계속 있습니다.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 321 0608 / PW: 0608
7.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 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주기도문을 사용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회를 마칠 때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감합니다. 기도의 원형으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13절’에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기도문 자체로만 볼 때는 “주기도문”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도할 때, “주님 가르치신 기도” 혹은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므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심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기도”를 하지만 서로 다르게 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문장의 끝 부분을 잘못 암송해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예전 번역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에서 “나라이”라고 번역된 것은 당시에는 주격조사를 요즘처럼 ‘은,는,이,가’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만을 사용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에’로 암송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라고 번역한 옛번역은 ‘오늘날’을 ‘오늘’로 고쳐야 합니다. 그날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이 번역으로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틀리게 한다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바르게 하며, 일치해서 하는 것이 공동체성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새로 암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조금 애써서 반복하다보면 암기가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암송이 될 것입니다. 틀린 것을 반복하는 것은 옳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기에 “주님의 기도”의 통일을 함께 도전해 보겠습니다.